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1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23)	봉헌 (212)	성체 (166)	파견 (119)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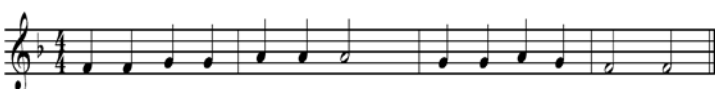
제1독서 | 이사 50,4-7

화답송 | 시편 22(21),8-9,17-18,19-20,23-24(◎ 2가)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필리 2,8-9 참조



Praise to you, Lord Je- sus Christ, King of end-less glo- ry!

복음 | 마르 14,1-15,47<또는 15,1-39>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4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11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3/18	유 요한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25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백합꽃 봉헌
	\$200	\$80	\$450	\$9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3/31	유 요한/ 유 마리아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4/7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4/14	홍 마르코/ 홍 아네스
3/1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21	김 요아킴/ 고 안나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본당 사정으로 셋째주(4 월 15 일 7 시)에 하게됩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과 성경공부 성주간에 한 주 쉽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세째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4 월 15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4 월 21 일 토요일 11 시

손아놀드 형제 / 손쟈마 자매 의 자녀 손지호(데레사), 손태호(알렉산더) 의 첫 영성체식이 St. Phillips 성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봄 하마йка 축제 4 월 8 일(둘째주일)

한국 공동체에서는 불고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마йка 라폴티켓은 총무님께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2,000 짜리 티켓을 단돈 \$20 에 판매중 입니다.

성주간 미사일정

3 월 29 일(목)오후 7 시-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3 월 30 일(금)오후 3 시- 십자가의길(영어, 스페인어)

오후 7 시- 주님 수난 예절

3 월 31 일(토)오후 8 시- 부활 성야 미사

예수님 부활을 축하 드립니다

4 월 1 일 예수님 부활을 축하 드리며, 미사 후 친교실에서 아침 식사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권중오 라파엘 -SBS 보도국 스포츠부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어떻게 사랑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중국의 노자는 '보원이덕'(報怨以德) 즉 원수를 덕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노자보다 조금 뒤에 태어난 공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은덕으로 원수를 갚으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겠느냐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직보원,이덕보덕'(以直報怨,以德報德) 즉 원수에게는 올바른 원칙으로 상대하고 나에게 덕을 베푼 사람에게는 은덕으로 보답하라고 주장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원수에게까지 덕을 베풀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노자의 말과 비슷한 정신이 '미운 놈 떡 하나 더준다'는 우리 속담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을 오히려 하나 더 주는것은 공자의 말처럼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눈길 한번 주기도 싫은데 떡을 하나 더 주다니요?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B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간파한 뒤 A에게 역시 나쁜 감정을 갖습니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런 나쁜 감정이 쌓이고 악화되면 감당하기 힘든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지만 그 이성을 1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수에게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미

연에 방지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실천한 적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적도,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준 적도 없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명인 셈이지요.

<주님의 기도>에는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지혜로는 답이 도무지 안 나와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로마 12.14,19-21)

교리상식

십일조의 유래가 뭐가요?

구약과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십일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톨릭에도 엄밀한 의미의 십일조는 아니지만, 미사때 바치는 헌금 외에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바로 십일조에서 유래한 교무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무금의 목적은 교회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목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무금의 근본 취지가 교회가 사목을 원활히 하도록 힘을 모으자는 데 있으니, 각자의 처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봉헌하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